

물 일렁이니 산도 함께 흔들리다...백남준 제자가 쓴 '영상 시'

December 14, 2024 | 문소영 기자

Page 1 of 1

물 일렁이니 산도 함께 흔들리다...백남준 제자가 쓴 '영상 시'

문소영 기자

국제갤러리의 K3 전시실. 공중에 걸린 스크린에 눈 덮인 산봉우리가 비치는 데, 그 이미지는 잔잔히 흔들리고 출렁 거린다. 스크린 아래 물 웅덩이의 물결로 인해 프로젝터에서 나온 빛이 굴절 되기 때문이다. 주기적으로 갤러리 직원이 웅덩이를 휘저으면 산봉우리의 이미지는 격하게 움직이고 때론 해제된다. 항구적인 것의 대표인 '산'의 이미지가 변화무쌍한 것의 대표인 '물'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산의 이미지는 다시 잔잔해지지만 물결이 격하게 일어나면 다시 요동친다. 지난 7월 타계한 '비디오아트의 시

'비디오아트 시인' 빌 비올라

국제갤러리서 사후 첫 국내전 의식·시간의 흐름 작품에 담겨



빌 비올라 개인전의 '무빙 스틸니스 레이너 산 1979'의 모습. [사진 국제갤러리]

인' 빌 비올라(1951~2024)의 미디어아트로서, 요즘의 어지러운 시국에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다.

비올라는 '비디오아트의 아버지' 백남준의 조수로 일하며 이 새로운 매체를 적극 활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백남준이 새로운 매체 기술과 그로 인한 사회정치적 변화에 주력했다면, 빌 비올라는 인간의 인지와 인식, 시간의 흐름, 삶과 죽음의 사이클 등 명상적 주제에 주력했다. 비올라 자신이 자신의 영상을 "주관적 인식의 언어로 기술한 시각적 시(詩) 내지는 우화"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비올라는 영상에서 슬로모션 기법으로 시간을 늦추거나 리버스모션 기법으로 거꾸로 돌려 신비롭고 영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9년 전 내한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정말 흥미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좋은 나쁘든 그 힘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테크놀로지, 비디오, 이런 것들이 필요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시간 너머에 뭔가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요. 그래서 내가 일생 동안 시간에 대해 작업을 해온 것입니다."

비올라의 일생에 걸친 탐구의 초기 형태를 K1 전시장 2층의 '더 리플렉팅 풀'(1977~9/1997)에서 볼 수 있다. 수영장 가장자리에 한 남자가 우뚝 서 있다. 물에 뛰어들기 위해 도약한다. 공중에서 태아처럼 몸을 움츠린 순간 그 모

습으로 정지된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자연은 계속 움직여서 수면이 일렁이고 수면에 그가 걸어다니는 모습이 어렴풋이 비친다. 그리고는 한참 뒤 남자가 갑자기 물속에서 나체로 나온다. 물을 때개로 해서 맞물린 죽음과 탄생의 순환을 나타내는 작품으로, 작가가 어린 시절 호수에 빠져 익사할 뻔한 참나에 도리어 빛과 아름다움을 발견했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전시작은 2006년 작품이 가장 최근작이며 초기작인 1970년대 작품이 많다. 비올라 사후의 첫 국내전에서 대중에게 인기 많은 후기작 대신 그의 작품세계를 진지하게 공부하기 좋은 초기작들을 많이 넣은 것이 신선하다.